

이민 신청자 소셜미디어 조사 “미국의 가치와 법질서 훼손 방지” 이민국 심사 강화

연방정부가 합법적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미적' 활동과 '도를 넘는' 발언을 걸러내기 위한 새로운 심사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 조셉 에들로 국장은 C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영주권과 각종 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심사'가 주요 수단"이라며 "이는 미국의 가치와 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국 직원들에게 "반미적 관점이나 활동이 확인된 경우, 이는 이민 혜택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매우 부정적 요인'으로 간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에들로 국장은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몇 년간 대학 캠퍼스에서 허용된 행태들"을 언급하며 "하마스 등 외국 테러 조직의 이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폭력적 사상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누구든 소셜미디어나 다른 공간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국가 전복이나 테러 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처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미적 활동 조사는 이민 허가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아니며, 다만 이해해야 할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인권 및 이민 단체들은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자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처벌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연방 법원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클럽비아대 가자전쟁 시위에 참여한 마흐무드 칼릴 등 합법 거주자를 추방하려 한 시도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국무부는 보수 성향 운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을 '축하'했다는 이유로 몇몇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 이민국 기능 확대, 무장 요원 신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민국은 기존의 단순 행정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이민 사기 방지와 심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들로 국장은 "우리는 경찰이 아니다" 라면서도 "현재 합법 이민 체계에 혼란을 주는 대규모 사기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 무장 특별요원을 새로 채용하고 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민국이 단순히 서류를 자동 승인하는 '고무도장 기관'으로 전락했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9·11 이후 이민국의 본래 임무는 철저한 심사과 국가안보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국은 최근 시민권 시험에 미국 역사와 정치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지원자의 '도덕적 품성' 검증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이웃 인터뷰' 제도를 부활시켜 지원자의 거주지 주변인과 동료를 조사하는 절차도 일부 도입했다.

에들로 국장은 "모든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제도는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고 있다"며 "이민국을 단순한 DMV처럼 운영하고 싶지 않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DACA의 존속 여부는 미정

이민국이 관리하는 대표적 정책 중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 입국하거나 비자를 초과 체류한 약 50만 명의 '드림러(Dreamers)'를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DACA 폐지를 시도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절차상 이유로 이를 차단했다.

에들로 국장은 2기 행정부의 DACA 정책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연방 법원은 DACA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했지만, 기존 수혜자에 한해 2년 단위의 갱신은 허용했다. 공화당 주 정부들은 새 행정부가 이 정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0년 이민국 부국장이던 에들로는 당시 DACA를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진=shutterstock

| 숫자퍼즐 정답 | | | | | | | | |
|---------|---|---|---|---|---|---|---|---|
| 4 | 2 | 7 | 8 | 6 | 9 | 5 | 3 | 1 |
| 5 | 6 | 8 | 1 | 3 | 4 | 9 | 2 | 7 |
| 9 | 3 | 1 | 2 | 7 | 5 | 8 | 6 | 4 |
| 1 | 7 | 4 | 9 | 8 | 3 | 2 | 5 | 6 |
| 2 | 8 | 3 | 4 | 5 | 6 | 1 | 7 | 9 |
| 6 | 9 | 5 | 7 | 1 | 2 | 3 | 4 | 8 |
| 8 | 5 | 2 | 6 | 9 | 7 | 4 | 1 | 3 |
| 3 | 1 | 6 | 5 | 4 | 8 | 7 | 9 | 2 |
| 7 | 4 | 9 | 3 | 2 | 1 | 6 | 8 | 5 |



종교 무관
주 7일 예약상담

뒤늦은 후회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어떤 50대의 중년 부인이 필자를 방문해서 사주를 감명해 달라고 문의한 것이다. 먼저 부인의 팔자에 드러난 운세를 살펴보니 현재의 운로가 원만한 남편의 덕(德)을 입지 못하는 운로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남편의 활동성을 크게 저해하거나 건강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흐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부인의 팔자를 보면서 먼저 부인에게 건넨 말은 "지금 현재 부인의 팔자에 드러난 운세로 볼 때 원만한 배우자의 덕을 입기가 어려운 운로가 되고 또한 남편에게 건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흐름이 되는데 남편의 건강은 어떠십니까?"하고 물으니 남편의 건강은 아직은 괜찮으나 남편은 지금 건설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들쭉날쭉하니 수입이 고정적이지 못해서 지금은 부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정중하게 그 부인에게 조언해 준 말은 "지금 현재 부인의 운로로 볼 때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아프거나 활동성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운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남편의 건강에 유의해야 하고 무리한 일을 벌이거나 남과 다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분간은 직업이나 일로 인해 부부가 서로 떨어져서 지내거나 별거를 하는 것도 서로에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해 준 것이다. 그랬더니 그 부인의 표정이 "참 별일도 다 있네"하는 꺼림직한 표정을 지으면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다시 그 부인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면서 찾아와서 한 숨을 쉬면서 말문을 여는 것이다. "예전에 원장님께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설마 했는데 원장님 말씀대로 최근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선생님 남편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다시 말해주기를 "그 당시 남편하고 잠시라도 별거를 하거나 하다못해 잠을 자는 방이라도 서로 떨어져서 지냈다면 그런 참사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의 사주를 볼 때 워낙 건강한 체질을 타고 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운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당분간은 남편과는 서로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라고 조언해 준 것이다. 그 부인을 보내고 나서 필자가 생각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운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사주명리, 풍수지리, 수맥감정 전문★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